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/ 산림청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9. 10. (금)	담당부서	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
담당과장	과장 김인식 (031-290-1101)	담 당 자	연구사 김태동(031-290-1106) 연구관 이효신(031-290-1103)

나라꽃 무궁화, 이제 우리집 화분에서 키운다

-국립산림과학원, 무궁화 왜성품종 묘목 대량생산 가능한 조직배양기술 개발-

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나라꽃 무궁화를 이용한 실내정원 조성 등 무궁화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화분 재배가 가능한 왜성품종(생물의 크기가 그 종의 표준크기에 비하여 작게 자라는 품종)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복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○ 무궁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관상수로 국내외에서 약 300여 품종이 개발됐다.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50년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를 수집하여 육성해 왔다. 특히 최근 '홈 가드닝(Home Gardening)'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분 재배가 가능한 '윤슬', '소양' 등의 왜성품종을 개발하고 가정, 실내 등 생활 속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량증식 연구를 추진해 왔다.

○ 그러나 품종 고유의 형질을 유지하며 증식하기 위해서는 무성번식으로 묘목을 생산해야 하는데, 왜성품종은 줄기 생장이 매우 느려 삽목(꺾꽂이)을 위한 삽수 재료의 대량 확보가 어려워 효과적인 무성번식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
□ 이에,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무궁화 식물체의 잎 등을 기내

배양하여 부정아(不定芽, 일반적으로 눈이 생기지 않는 조직에서 나오는 눈)를 유도해 식물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하였다.

○ 이번에 개발된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 무궁화 왜성품종 클론묘(복제묘목)의 대량생산이 상용화된다면, 국가상징인 무궁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“나라꽃 무궁화는 국가상징이기도 하지만, 관상, 식·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무궁화 등 유용 산림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·보급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: 무궁화 왜성품종 묘목 대량생산 기술 관련 사진(4매)

<붙임: 사진자료>



<사진1> 신초 대량증식



<사진2> 신초의 뿌리발달



<사진3> 폿트묘 생산(온실)



<사진4> 무궁화 조직배양묘 꽃 형성(좌: 윤슬, 우: 소양)